

# 어지러운 한해 - 국제석유시장



계 덕 남

〈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처장 〉

## 날개가 없어도 추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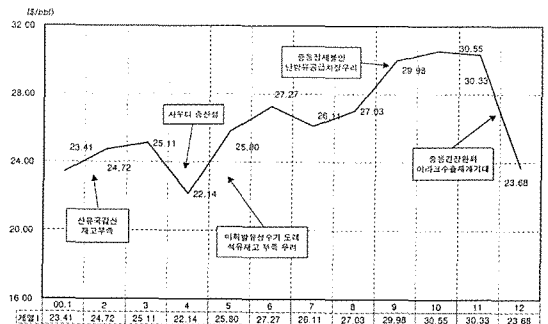
정말로 가늠하기 힘든 한해였다. 온갖 변수가 국제석유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추측과 상상을 뛰어 넘는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원유가격을 보면, 영국산 Brent유의 최고가격은 배럴당 38\$까지(9월7일)가 10년전 Gulf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고, 최저가격은 21.65\$(4월10일)로서 그 차이는 16\$을 넘고 있다. 중동산 Dubai유도 이와 유사하여 최고치는 33\$(11월13일)이었고, 최저가는 20.27\$(4월10일)로서 약 13\$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국제석유시장은 4월의 최저점으로 해서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비수기에 하락을 보이고 성수기에 상승한다는 일반론이 성립한다고 보여지지만은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4월의 유가하락은 연초 22-23\$대에서 안정을 보이다 이후 25\$이상 치솟자(두바이 기준) 사우디아라비아 등 OPEC 주요 회원국들의 증산설이 계속해서 시장에 떠돌고, 실제로 OPEC가 3월 총회에서 170만b/d의 증

산을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OPEC가 증산하지 않았다면 유가는 계속 올라갔을 것이다. 그리고 9월이후 11월까지 상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의 유혈충돌에 따른 중동의 긴장이 크게 작용하였고 여기에다가 미국 동북부의 난방유 재고가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상승작용을 가져온 결과이다.

두바이 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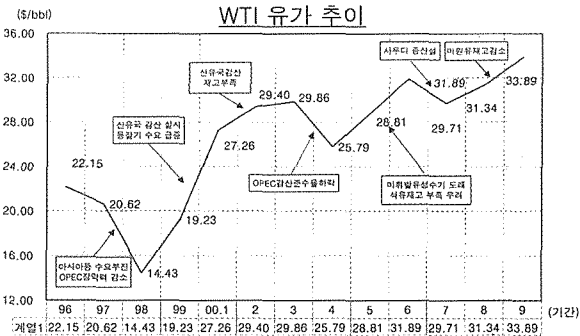
그렇다면 금년의 석유시장도 시장원리에서 움직였다기 보다는 인위적이고도 정치적인 힘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유가 등락폭이 13\$에서 16\$에 이르러 전례 없는 혼란을 보여준 한해였다.

석유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크게 일으키는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거래당사자, 투자자 등은 그들의 활동을 예측하고 계획하여 구매하고 저장하고 판매하는 일련의 경제·사회활동을 멈춰버리고, 정지시키고 눈치를 살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시장은 투명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를 직시하여 이를 자기의 의사에 바로 바로 반영하여 합리적인 소비와 생산을 하도록 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어야 모든 것이 순조롭고 합리적으로 흘러가는 법이다. 그러나, 오늘의 국제석유시장은 급속한 가격의 추락, 상승이 반복되는 어려운 시장임에 틀림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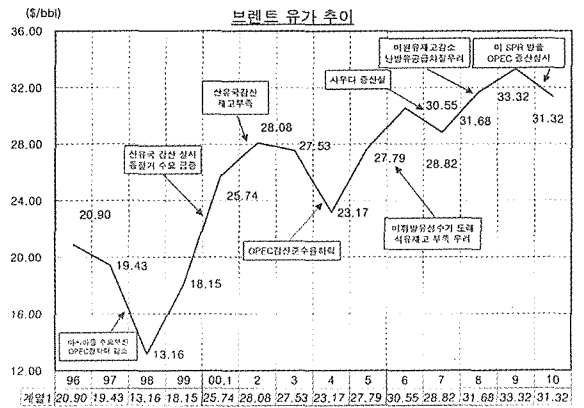
**뒤따라가는 공급주의**

그러면 지금부터 시장의 주체인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금년에는 어떤 행동을 하여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변화무쌍한 가격움직임이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하였는가 하는 의문은 오늘의 시장과 내일의 시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1998-99년에는 4차례에 걸쳐 총 430만b/d를 감산하여 일단 유가를 12\$대에서 17\$대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수 차례에 걸쳐 필자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OPEC의 생산카르텔이 훌륭하게(?) 단합하여 국제석유시장의 지배력을 회복한 덕택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금년에는 수 차례에 걸쳐 총 370만b/d 상당의 증산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가격은 작년보다 오히려 10\$가량 비싼 27\$로 폭등했다. 참으로 놀라운 비결이 숨어있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430만b/d를 감축하여 5\$ 상승한 것에 비하여 370만b/d를 증산하고서도 그 2배가 넘는 10\$의 순수한 상승분을 가져온 것이다.



이는 수요측면에서 볼 때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가 5% 이상 증가하는 호황과 아시아의 수요가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점에서 견조한 수요증가를 불러왔다고 생각되어 진다. 공급측면에서 보면 OPEC는 시장의 공급시기를 한 템포 늦춤으로서 한 걸음 빨리 온 수요로 형성된 높은 가격이 급락하는 사태를 방어하는 모양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공급물량도 분기별로 수요규모에 맞추어 조절하여 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OPEC가 그간 주장하던 유가밴드제도와는 상관하지 않고 흘러넘치지 않고 차라리 충분한 공급을 유지하며 그 시기는 항상 시장의 요구보다 늦게 실시하여 평평한 시장의 긴장을 유지하는데 공헌한 것이다. 지금의 OPEC 생산량은 거의 3,000만b/d에 달하여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다. 생산여력의 부족은 새로운 투자를 필요로 하지만 시장은 보다 예민하게 반응할 소지가 많다. 흔히 나타나는 산유국의 정치적 불안과 노조의 파업, 사보타주, 사고 등은 즉각적으로 공급불안을 주어 유가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이스라엘과의 분쟁은 석유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고정적 메뉴로 변해 버렸고 과격한 이라크의 수출중단 위협은 항상 미국과의 마찰뿐만 아니라 석유시장을 출렁이게 하는 주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유가로 인한 "석유위기"는 모면하였다고 보아진다. 최근의 유가가 22\$대로 떨어져 이러한 믿음이 더 간다. 이는 겨울철 성수기에 수급이 안정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생각(심리)과 이에 따른 투기자금의 대량 이탈이 원인이라 하겠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안정심리는 4차에 걸친 OPEC의 증산(370만b/d)이 서서히 효과를 보이는 일종의 온돌방 효과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것이다.

### 밝은 2001년 석유시장

지금까지 2000년의 국제석유시장을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내년의 국제석유시장은 어떠한 것인가? OPEC는 다시 감산한 것인지 아니면 증산할 것인지? 그리고 유가는 다시 오를 것인지 또는 내릴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그러나, 금년처럼 어지럽고 혼란스런 시장은 기대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다. 시장은 보다 투명해지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안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내년에는 부시 공화당이 집권함으로써 올해와 같은 집권말기의 레임덕을 시험하려는 이라크의 도전은 좀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Bush man은 전통적인 Texas 석유가문 출신으로 석유산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볼 때 Gore 환경론자가 당선되었다면 수요억제정책을 우선 채택할 가능성이 높는데 반해 Bush 정권은 보다 공급 확대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재고는 충분히 유지하도록 하고 석유개발, 생산 등에 대하여도 보다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중동정책 특히 對이라크 관계는 보다 확실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외교정책은 세계 전역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석유기업에 대하여 그 활동을 용의 하게 할 것이다. 한편, 생산자인 OPEC는 적

절한 감산을 통하여 지금의 고유가에 의한 고수익을 보장받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증산의 경우에는 한 발 늦게 하여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으나 감산은 한 발 먼저 하여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내년 1월 17일의 OPEC 임시총회는 비수기에 진입하기 전에 생산을 줄이려는 의도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속한 감산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시장의 변화도 4-5\$/b의 변동폭을 보여 보다 안정을 되찾지 않겠는가 예상된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 유카밴드제에 의한 기준은 22-28\$/B인데 금년이 높은 쪽(28\$/b)으로 나타났다면 내년에는 보다 낮은 쪽(22\$/B)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대부분 국제 기관들은 내년도의 국제유가가 올해보다 4-5\$/B 하락한 25\$/B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기관 2001년 국제유가 전망

(단위 : \$/bbl)

기 관	기준 유종	2001년				
		1/4	2/4	3/4	4/4	평균
에너지정보국 (미국)	정유업체 도입단가	26.50	24.24	23.20	22.31	24.01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미국)	Dubai	26.50	21.25	20.50	19.50	21.93
세계에너지연구소 (영국)	Brent(D)	28.80	25.40	24.80	25.50	26.10
에너지안보연구소 (미국)	Dubai	24.77	21.48	20.88	22.11	22.31

중동전쟁이나 아랍의 석유금수와 같은 극단적인 사태의 발발은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이다. OPEC내에서도 생산여력이 200만b/d에 육박하고 있는 사우디의 영향력이 보다 커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온건노선을 추구하는 사우디의 석유정책은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밝아오는 새 천년의 첫해는 맑고 안정된 국제석유시장을 기대하여 본다. ☉